

# 평택 ‘소풍정원’ 4가지 색 테마정원 자연 속에 머물며 즐기는 가족 여행지



소풍정원은 평택시 고덕면 공리에 4개 섬으로 조성한 9천249㎡ 규모의 습지 공원이다. 이 공원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생태를 체험할 수 있다. 소풍정에 오르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데크로 된 소풍 산책길을 따라가다 보면 연꽃 습지와 모래 놀이터도 만나 볼 수 있다. 곳곳에 설치된 철새 모양의 솟대를 찾아보는 것 또한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그동안 생활 주변 공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태와 상징성 있는 여러 조형물과 자연적인 소재들이 기존의 크고 작은 버드나무와 연못 등 자연환경과 잘 어우



러져 특색 있는 경관을 보여준다.

평택시는 4개의 정원을 조성했다. 첫 번째 ‘이화의 정원’은 전통담장과 공원 부지 내 과수원 배나무를 옮겨와 사라져가는 평택 배꽃의 향수를 배려했다. 다문화와 다양성의 잠재력을 표현한 ‘무지개 정원’에는 무지개색과 등지 형태의 조형물, 오름 데크, 무지개 다리가 재미를 더한다. 뱀비우스 띠를 형상화한 공간에 90여개의 크고 작은 구 형태의 경관조명이 압권인 ‘빛의 정원’에는 작은 수로(정화의 샘), 시간의 기둥을 통해 상징성과 멋을 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담한 규모의 ‘지지배정원’은 대나무 숲과 소리나눔 파이프를 통해 소통의 의미를 느끼도록 했다. 또 배롱나무, 매화나무, 남천, 금죽 등의 수목과 무늬맥문동, 비비추, 무늬억새 등 지피식물 5만2천여 본을 식재하고, 마사토와 화산석 등 자연적인 포장재로 조성한 오솔길과 녹지공간은 여유와 자연미를 자아낸다.

평택시는 소풍정원을 더 좋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정원은 아이 동반 가족나들이나 연인들의 오붓한 데이트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진위천의 맑은 자연과 함께하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다. ▼